농림축산식품부 | 보도 설명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5.(수) 배포 시 배포 2026. 11. 25.(수)

시설채소류 가격상승은 일시적 겨울철 생육 특성을 감안 관리 강화

〈 보도 주요 내용 〉

11월 25일(수) 문화일보 ‘‘햇볕 가뭄’에 물가 비상, 상추 121%·깻잎 88% 상승’ 기사에서 10월 하순부터 일조량이 부족해지며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〈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〉

상추, 깻잎, 애호박 등 시설재배 채소류는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잦은 강우, 흐린 날씨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생육이 지연되고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

* 출하량(11.하): (상추) 73톤 (평년비 8.6%↓, 전년비 11.1%↓), (깻잎) 31 (11.5%↓, 12.7%↓), (애호박) 144 (0.5%↓, 6.7%↓)

다만, 생육 및 수확 주기가 비교적 짧아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 생산량도 빠르게 회복되어 가격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

11월 기준 상추, 깻잎, 애호박의 소매가격은 여전히 전·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.

* 소매가격(11월): (상추) 1,128원/100g(평년비 18.8%↓), (깻잎) 1,429원/100g(평년비 45.7%↓), (애호박) 1,639원/개(평년비 6.8%↓)

정부는 잦은 기상변동에 대응하여 주요 시설채소의 생육 및 출하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,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등과 생육관리 지도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성만	(044-201-2681)
		담당자	사무관	황수지	(044-201-268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